

4 월 선교소식

샬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모든 식구들께 탄자니아에서 안부 드립니다.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혼동스런 때에 어떻게들 지내시는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모두 모두 안전하고 평안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곳 탄자니아에도 코로나의 여파로 모든 학교가 휴교를 시작한지가 벌써 6 주가 되었지만 언제 휴교령이 해제될 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진자는 2 일 전까지 299 명으로 서방세계에 비하면 아직 적은 숫자이지만 검사할 키트의 수량이나 검사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정확한 발표인지, 치료역량은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로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금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됩니다. 더이상 코로나 상황을 발표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미디어에 명령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고 보니 어떤 대책으로 이 국면을 풀어갈 지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한국 대사관과 미국대사관(저는 미국여권)

에서는 자주 탄자니아를 출국할 것을 권유하면서 특별기편을 준비하고 있으니 예약 여부를 알려주라는 소식을 보내오고 있으나 저희 부부는 사역지에 남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비록 학생들은 캠퍼스에 없지만 교사들은 정상적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스텝과 그 밖의 일일 노동자들이 방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선교관 건축 마무리 및 환경개선 작업 등 학기중에 하지 못한 곳곳의 수리와 교문 부근의 정원 공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내는데 필요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사람이 만들어서 외부에 일 보러 나갈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큰도시 중심의 타지역 장거리 여행자들을 대상(특별히 교사)으로 2 주간 자가격리를 우리 캠퍼스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올 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오늘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개학이 지연되면서 지난 주부터는 온라인 캠퍼스(on-line campus)를 오픈하여 인터넷 강의, 학습자료제공, 학습과제 제출, 질의 응답 및 숙제 점검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걱정이 많은 이 때에 리빙 스톤 캠퍼스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느라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 속도가 한국만큼은 안되어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여느 방학 때보다 학습 열기가 가득하니 감사한 일이지요. 학교의 이와같은 열의에 학부모들은 만족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의 눈을 보아가며 하는 공부가 하루 속히 재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탄자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우한 코로나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모든 학교의 개학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3. 개학이 늦어질때 발생하는 학교의 재정문제를 위하여.
4. 대학입시 시험(국가시험 - 원래는 5 월 중순)을 치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개학이 늦어지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5. 저희 부부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선교회 모든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 합니다.

2020 년 4 월 27 일.

탄자니아에서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



답장전달